







희천시조

저룩한 첫 자욱

가야 할 곳 먼저 찾으셔야 할 곳 얼마나 많았으랴 허나 희천으로! 새해의 첫 자욱을 찍으신 장군님 그이 희천의 눈덮인 산정에 오르시었다

야전복자락이 얼어드는 흑한수의 눈보라 강행군길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이 기다리고있어 북방의 험난한 그 길부러 헤쳐오신 장군님

그이 더듬으시는 랑림산맥의 중중첩첩 산발 불이 이는 격전의 전구 뜨거운 심장에 바위가 부서지고 얼음강산이 녹아내리는 바로 여기였구나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1211고지로 향하시던 수령님처럼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대고조의 전선과 전선들을 이끄시고 우리 장군님 오르신 최전방지휘소가

부강조국의 힘이며 열린 전기 그것으로 풀어야 할 괴물 그것으로 폭포치게 할 반딧불이 언제를 향해 걸음 옮기시는 그이의 마음속에 넘실거리고있었다

불굴의 정신력으로 승리는 언젠의 높이에서 그이는 꽃피는 인민행복의 높이를 보고

《희천속도》의 불바람

첫 자욱 한 광춘

게시였다 불라는 그이 시선 산발너머 저멀리 비껴갈 때 은 나라 전선이 희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희천속도》가 대고조의 전투장마다에서 노도처럼 질풍쳤다

어서 빨리 강성대국에 가자고 령장의 그 손길 높이 드시어 용맹의 더 큰 나래를 달아주시는 장군님

애니 짜정 청천강반의 두려운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로 병사들의 가슴에서 불바람이 터져 창조와 위훈으로 질풍처럼 내달는 소리 새해전투의 첫 일격장이 번져왔다

아,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우리 장군님 거룩한 새해 첫 자욱을 찍으신 희천의 산정에서 내 조국의 땅과 하늘에 2012년의 봄빛이 뜨거워라!

《희천속도》의 불바람

저룩한 첫 자욱을 찍으신 장군님

《희천속도》의 불바람

매일의 10년도 오늘에 당겨오는 《희천속도》가 되었다

낮과 밤이 질주하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굽어치는 거창한 승결 산악을 통제로 날리는 폭음으로 울리고 하늘땅을 달구는 용접불꽃으로 타올라 온 건설장을 뒤흔드는 립체전의 피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시간은 흐른다 허나 여기 희천에선 병사들 심장처럼 안고사는 그 믿음으로 력사가 처음보는 비약의 분과 초가 흐른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 병사들이 보고 싶어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우리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으로 고통치는 희천시간

그 시간에 발을 맞춘 은 나라 전선과 전선이 2012년을 안고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행복의 물보라 준공의 환희를 머치는듯

그이 승업한 모습 우러르는 가슴들에 새차게 일렁이는 격정의 파도여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그이 뜨거운 안광으로 평양하늘을 바라보시며

인민의 락원으로 펼쳐가는 이 땅에 번쩍이며 열렬히 행복의 창문들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희천속도》의 불바람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에 힘써 농사

《청춘과원》을 늘여 간다

과수학 연구소를 찾아서

전력생산자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장치료대에서

독자의 질지

독자의 질지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한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한

과수발적지선정과 조성

전력생산자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

독자의 질지

《우리 선생님》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한



신발들을 생산하기 위한



